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제주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10월 30일 -



제주특별자치도
농 업 기 술 원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제주도농업기술원, 메밀 활용 탁주 약주 개발…특허 출원-3면	미래농업육성과	제주일보
○	제주산 메밀로 빚은 탁주·약주 특허 출원-6면	미래농업육성과	제주매일
○	제주산 메밀 이용 탁주·약주 제조기술 개발…11월 중 특허 출원-5면	미래농업육성과	삼다일보
○	생활개선회 노형, 고추장 기부-13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감귤품평회 ‘온주감귤’ 분야 출품 접수-10면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2026년 감귤품평회 ‘온주감귤’ 분야 출품 접수 알림-8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가뭄에 녹두밭 갈아엎은 농민들 “대책 마련하라” -5면	-	제민일보
○	드론 농약 살포-4면	-	삼다일보

(제주일보: 2026년 10월 30일)

○ 제주도농업기술원, 메밀 활용 탁주 약주 개발…특허 출원-3면





제주도농업기술원이 메밀을 활용해 제조 기술을 개발한 탁주(사진 왼쪽)와 약주.

제주도농업기술원, 메밀 활용 탁주 약주 개발…특허 출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산 메밀을 활용해 탁주와 약주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11월 특허 출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제주산 메밀의 소비를 늘리고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를 진행, 올해 알코올 함량 12%의 탁주와 14%의 약주 제조기술을 마련했다.

메밀 탁주는 국산 효모로 제조했고, 연한 분홍빛과 신맛·단맛의 조화가 특징이다.

농업기술원은 알코올 함량과 원료 대비 술 생산량, 기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양조 조건을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음 평가에서는 회와 수육 등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나왔고, 고급 탁주로 상품화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메밀 약주는 물 첨가량과 숙성기간에 따른 품질·기호도를 비교해 적정 제조 방법을 정했다고 농업기술원은 밝혔다.

10. 29.
제주일보 3

(제주매일: 2026년 10월 30일)

○ 제주산 메밀로 빚은 탁주・약주 특허 출원-6면

제주산 메밀로 빚은 탁주·약주 특허 출원

도농업기술원, 제조기술 개발…전통주 상품화 추진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제주산 메밀을 활용한 탁주와 약주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11월 특허 출원을 추진한다.

농업기술원은 제주산 메밀의 소비를 늘리고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를 진행해 올해 알코올 함량 12%의 탁주와 약 14%의 약주 제조기술을 마련했다.

메밀 탁주는 국산 효모로 제조했으며 연한 분홍빛과 신맛·단맛의 조화가 특징이다.

알코올 함량과 원료 대비 술 생산량, 기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양조조건을 확립했다.

시음 평가에서는 회와 수육 등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고급 탁주로 상품화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메밀 약주는 물 첨가량과 숙성기간에 따른 품질·기호도를 비교해 적정 제조방법을 정했다. 숙성기간이 길어질수록 과일향을 내는 에스터류 성분이 증가했으며 최종 기호도 평가에서는 5개월 숙성한 약주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방법으로 제조한 약주는 풍부한 향과 연한 갈색이 특징이다.



제주 메밀 탁주와 약주.

농업기술원은 특허 출원 이후 도내 양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제주산 메밀 전통주의 상품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10. 30.
제주매일 6

(삼다일보: 2026년 10월 30일)

○ 제주산 메밀 이용 탁주·약주 제조기술 개발…11월 중 특허 출원-5면

제주산 메밀 이용 탁주·약주 제조기술 개발…11월 중 특허 출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산 메밀을 이용한 탁주와 약주 제조기술을 개발, 오는 11월 중 특허 출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연구를 진행, 올해 알코올 함량 12%의 탁주와 약 14%의 약주 제조기술을 마련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특허 출원 이후 도내 양조업체에 기술을 이전, 제주산 메밀 전통주의 상품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메밀 탁주는 국산 효모로 제조됐고 12%의 알코올 함량과 원료 대비 술 생산량, 기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양조조건이 확립됐다.

연한 분홍빛과 신맛 및 단맛의 조화가 특징으로 시음 평가를 통해 고급 탁주로 상품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알코올 함량 약 14%인 메밀 약주는 물 첨가량과 숙성기간에 따른 품질·기호도를 비교해 적정 제조방법이 정해졌다.

숙성이 길수록 과일향을 내는 에스터류 성분이 증가했고 최종 기호도 평가에서는 5개월 숙성 약주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정민 기자 73jmlee@samda[illegible]

10. 30.
삼다일보 5

(제주매일: 2026년 10월 30일)

○ 생활개선회 노형, 고추장 기부-13면



생활개선회 노형, 고추장 기부

한국생활개선회 제주시연합회 노형지부(회장 안순영)는 지난 27일 노형동 '솜뽁살레와 나눔냉장고'에 손수 만든 고추장 50개를 기부했다.

10. 30.
제주매일 13

(제민일보: 2026년 10월 30일)

❍ 감귤품평회 ‘온주감귤’ 분야 출품 접수-10면

◆ 감귤품평회 ‘온주감귤’ 분야 출품 접수

□ 대상품목 : 조생(노지 및 피복재배), 친환경재배

※ 재배면적 500ha 이상이며 출하시기가 일정기간에 집중되는 품종

□ 시상범위

- 친환경재배 : 3점(금상, 은상, 동상 각 1점)
- 조생(노지 및 피복재배) : 4점(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점)

□ 접수기간 : 10월 30일까지

□ 출품규격 : S-M사이즈 5kg 1박스

□ 접수 및 문의 :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2층 /(☎ 762-3091)

10. 29.
제민일보 10

(제주매일: 2026년 10월 30일)

❍ 2026년 감귤품평회 ‘온주감귤’ 분야 출품 접수 알림-8면

2026년 감귤품평회 ‘온주감귤’ 분야 출품 접수 알림

○ 대상품목: 조생(노지 및 피복재배), 친환경재배

* 재배면적 500ha 이상이며 출하시기가 일정기간에 집중되는 품종

○ 시상범위

- 친환경재배: 3점(금상, 은상, 동상 각 1점)
- 조생(노지 및 피복재배): 4점(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점)

○ 접수기간: 2026. 10. 26.(월)~10. 30.(금)

○ 출품규격: S-M사이즈 5kg 1박스

○ 접수 및 문의: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2층 / ☎ 762-3091

* 자세한 사항은 제주감귤박람회 누리집(https://www.jicexpo.co

10. 30.
제주매일 8

(제민일보: 2026년 10월 30일)

○ 가뭄에 녹두밭 갈아엎은 농민들 “대책 마련하라” -5면

가뭄에 녹두밭 갈아엎은 농민들 “대책 마련하라”

제주지역 재해보험 가입 배제

생산비 투입 후 작황 부진 호소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촉구

가뭄으로 녹두 수확을 포기한 제주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으며 피해 보상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역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안덕면농민회는 29일 오전 11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녹두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농민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트랙터를 동원해 가뭄 피해를 입은 녹두밭을 갈아엎으며 농업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농민단체는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녹두 생육이 부진해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자비와 비료비, 농약값 등 생산비를 투입하고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장에서는 잇따른 작황 부진으로 콩, 무 등 재배 작물을 바꿔가며 농사를 이어왔지만 마지막으로 선택한 녹두마저 실패했다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역별 가입 제한 문제가 제기됐다.

농민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 30. 제민일보 5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했지만 올해 가입 가능 지역은 전남 무안과 신안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녹두 농민들은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더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손실 보전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조영재 전농 제주도연맹 의장은 “제주에서도 지난해부터 녹두 재해보험을 적용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환경이 변하면서 재배 작물도 바뀌고 있는데 보험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뭄 피해 조사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피해가 발생하면 행정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며 “조사를 요청해도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면담 요청조차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와 제주도에 녹두 가뭄 피해 전면 조사와 실질적인 보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역 확대, 수확 포기 농가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농민 박수환씨는 “40년 가까이 농사를 지어왔지만 해가 갈수록 농사짓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만평 넘게 녹두를 재배했는데 대부분 피해를 입었다”며 “올해 돈을 벌지 못하면 무엇으로 내년 농사를 지어야 할지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정예은 기자



29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서 농민들이 가뭄 피해 보상과 재해보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정예은 기자

(삼다일보: 2026년 10월 30일)

○ 드론 농약 살포-4면



드론 농약 살포 29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한 당근밭에서 농민이 드론으로 농약 살포를 하고 있다. 임창덕 기자 kko@samdailbo.com